카누를 활용한 순창군의 수상레저산업 기반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성공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순창군, 카누 무료체험 진행

관광객 대상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체험 가능 · 간단한 안전교육 1시간 이수

카누를 활용한 순창군의 수상레저산업 기반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성공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은 수상레져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진행한 카누무료체험 인원이 지난 22일 현재 1,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주말과 휴일에만 체험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군의 기대를 넘어선 수치다.

군측은 화탄마을 앞 섬진강이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카누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무엇보다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카누 체험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누체험은 순창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간단한 안전교육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배우고난 후 1시간 가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카누무료체험은 10월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새로운 시도도 일고 있다. 적성, 유등, 동계, 풍산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돼 만든 섬진강레져연맹에서는 이같은 성공에 힘입어 레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반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생 모집에도 나선 것. 19명을 모집하는 이번 무료 자격증반은 순창군에 주소를두고 수영이 가능한 주민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메일(yjanghwa@korea.kr)이나 팩스 063)650-1759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063-650-1767번으로 하면된다.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한 달 여간 교육을 마치고 수상레저산업을 이끌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간주도 카누체험교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산업도 성공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은 섬진강 일대를 수상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2018년까지 총 19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드무소 쉼터처럼 잉어와 관련된 스토리를 복원하고 주말장터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융합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 수상레져산업의 기본이 될 카누기반사업들이 민간인 주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순창 섬진강을 수상레져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꽃무릇 시화전시 시상식

금상 고서윤 학생 · 일반부 황경심씨 · 채승화씨 · 김투호씨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지부장 문인순)가 주최하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후원하는 '제13회 꽃무릇 시화전시 기념식 및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24일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인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행사는 김상호 고창부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 김국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박종은 한국예총고창지부장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초등부에서 고창남초 3학년 고서윤 학생이 금상을, 중등부에서는 고창북고 1학년 심주성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일반부에서는 고창군 황경심, 정읍시 채승화, 고창군 김투호 씨가 주지스님상을 수상하는 등 총 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인순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장은 "꽃무릇 시화전시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 시인들에게 시문학의 감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에게도 문학과 함께 선운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 부군수는 "지역 문인 여러분은 글과 그림으로 군민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참예술의 생활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문인들이 탄생하고 고창문학이 보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꽃무릇 시화전시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선운사 극락교 앞 숲속 길에서 전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로컬플러스

순창경찰,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는 순창여중을 방문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정폭력 없는 순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일 순창여중 전교생(26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대처요령, 신고방법, 신고 후 처리 과정 등을 문답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교육한데 이어, 22일에는 순창여중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자리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순창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 실태, 사례, 대처요령,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잦은 가정불화와 가정폭력 등이 자녀들에게 크고 작게 거의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정 내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도우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일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자녀들 또한, 올바른 인성으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지만 알찬 시간을 가졌다.

최규운 서장은 "농촌지역도 가정불화에 크고 작게 노출된 가정이 있을 것이라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잦은 불화와 폭력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세심하게 신경 쓰자"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남원시는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법령 위임조례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개선,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사항 해소,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조승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행정자치부 강성탁 규제총괄팀장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조성사업 최종 보고회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위해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 받아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마지막 3단계 사업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장, 관계공무원, 설계자문위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고 설계상의 주요확인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8월 1차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규모의 적정성과 제시되었던 건설적 제안 등의 반영사항을 확인해 보고 용역 완료를 승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시설은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 노암동 867-1번지(남원 화장품 GMP생산시설과 동일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연면적 3,058.67㎡ 철골콘크리트 지상3층 규모이다. 남원시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11월까지 공사 발주와 착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회 이후 남원시 관계자는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이 시설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허브 및 농산물 이용 이너뷰티 소재 개발, 화장품 제형 연구, 시험분석 등의 R&D기반 종합산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화장품기업과 허브가공업체, 식품기업의 산업수요를 흡수하고 연구지원 성과물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사업화에 도움을 주어서 관련 매출 증대,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최종 목표가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과 천연원료에 기반한 산업특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기업이 남원을 찾는데 확실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추가 설명을 통해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고 기대 또한 크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행복한 가정 이루기 프로그램 운영

내달8~9일 각 20명씩

순창군이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 8일과 9일 2일 동안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 이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각 20명씩 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등 성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해를 통한 관계 회복에 나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 내용도 MBTI심리검사는 물론 가족의 유형 이해하기, 공통된 특성 찾기, 웃는 몸 명상, 음악에 맞춰 몸으로 표현하기 등 몸으로 웃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부부의 성 이해를 위해서는 성지식 체크리스트, 성자기 결정 알기 등 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부부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650-523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이통장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실시

남원시는 지난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과 고창 상하농원에서 이통장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통장 직무능력향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마을리더로서 거듭나는 이통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통장들에게 농업부문 6차 산업화의 이론과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이날 참가한 남원시 이통장들은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의 소규모 6차 산업 소개를 듣고 올해 개장한 고창의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어 전문 강사의 '매력소통법' 특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컨디셔닝' 특강을 통해 마을리더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환주 시장은 "지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고민해야 하는 지방자치 위기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그 대안의 하나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제시되는데, 도농복합도시 남원의 이·통장들이 이러한 흐름의 리더가 되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매년 반복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박호진 강사는 부정수급 개념과 현황은 물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부정수급 근절방안에 대한 강의를 실시해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와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교육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이 다양한 정보공유로 깨끗하고 청렴한 복지의식을 확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천년 고찰 강천사 사적비 제막식 막 내려

연혁 · 역사 모아 기록되

천년 고찰 강천사(주지 종고스님)의 사적비 제막식이 지난 22일 강천사 경내에서 황숙주 군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군산 성불사 종명스님, 동국사 종걸스님, 내장사 도완스님, 내소사 진성스님 및 스님 30여명과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천사 사적비는 강천사의 연혁과 역사를 모아 기록하였고, 6.25한국전쟁 중에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보존하고 강천사의 여섯 번째 중창주로 지금의 강천사의 법맥을 잇게 한 영월당 영신스님의 행적을 담았다. 비문은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이 정리하였고 글씨는 서홍식 선생이, 감수는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하였다.

이날 제막식에 앞서 영월당 영신(盈月堂 永信, 속명 김장엽) 큰 스님 부도비 제막식이 강천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강천사는 신라 진성여왕 원년(887년)에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 경진판 옥천군지(1760년, 영조 36년)에 의하면 강천사에는 불전이 3개소, 승방이 12개소에 명적암, 용대암, 연대암, 왕주암, 지적암 등 암자가 12개가 있었으며, 그 당시 500 여 수도승이 살던 큰 사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왕주암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먼저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후방 요충지인 금성(지금의 나주)을 점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 이 절에서 머물렀다고 해서 왕주암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강천사(剛泉寺)는 예전에 복천사(福川寺, 福泉寺)로도 기록되었고, 산세가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할 형상이라 하여 용천사(龍泉寺)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강천사라는 명칭은 조선 선조때 학자 귀봉 송익필이 이곳에 유숙하며 "숙 강천사(宿 剛泉寺)"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있으며, 옥봉 백광훈이 쓴 시에는 강천사(剛川寺)로 표기한 절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초부터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로 조선불교 초대 7인 종정 중 한분인 석전 박한영 대종사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연대암을 비롯 구암사, 만일사 주지를 겸한 사찰이기도 하다.

강천사 주지 종고스님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강천사에 관한 흩어진 기록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려는 선 지식인들의 노고와 의지를 비석에 새기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자"고 했다.

한편 강천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강천사 오층석탑(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2호)과 중대석, 보주만이 남아 있는 석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수령 300년이 넘는 강천사 모과나무(도지정 기념물 제97호)와 삼인대(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7호)가 강천사 건너편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훌륭한 군민 뽑는 '고창 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장 오희성씨 등 4명

고창군이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군민을 뽑는 '제32회 고창 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심의와 열띤 토론을 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문화체육장에 오희성씨, 공익장에 박종은씨, 애향장에 백재현씨, 효열장에 최병열씨를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한편, 수상자로 결정된 4명에 대한 군민의 장 수여는 내달 9일 '고창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